

생활 실천 · 문화 적용한 ‘불교적’ 인성교육 필요

인성교육진흥법 7월 시행, 불교계 대책은

인성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소 포괄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인성교육이라는 특성상 불교 등 종교계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내용을 예(禮), 효(孝), 정직, 책임, 배려, 존중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 (2조 2항) 그 영역은 공공교육을 비롯한 공공 영역 전반에 해당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정부는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보급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인증 프로그램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성 지도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 등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성 교육과 종교 교육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6월 1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불교계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교 정책 연찬회

에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과 불교와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성 교수는 “인성 교육의 지향점은 종교의 핵심 가르침과 일치하고 인성 교육이 구현하려는 공동체 모습은 종교가 꿈꾸는 이상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인간성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대에 ‘종교적’ 차원의 인성교육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공공 영역서 정책적 추진

종교계 역할 높아질 전망

포교 연찬회서 방향 논의

“실생활서 적용 가능해야”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까.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포교 정책 연찬회에서 보편성과 다양성, 현실성이 담보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교인성프로그램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개발돼야 한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적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적 문화콘텐츠와 인성교육의 융합도 전략 과제로 꼽았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 역량을 바탕으로 한 템플스테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무명을 밝히는 의미를 가진 연등축제를 ‘마음 밝힘’의 키워드와 연결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대중적 어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진흥센터’를 불교계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인성교육진흥센터는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포함해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 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계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족하고 현재 교육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추진 중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종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6월 11일 동국대 이사장 · 총장 합동취임식에서 총장 보광 스님(사진 왼쪽)이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학교기를 넘겨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종비생 출신인 일면 스님과 보광 스님은 일심동행으로 학교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명문사학 새 100년 시작하자”

11일,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 총장 보광 스님 취임식

불교건축 실현 · 해외교류 확대
조계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소외이웃 나눔 행보도 ‘눈길’

동국대가 이사장과 총장 합동 취임식을 열고 ‘일심동행’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동국대는 6월 11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38대 이사장 일면 스님과 18대 총장 보광 스님 합동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자광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는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09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명문사학”이라며 “학교를 도약의 반석에 올려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도 오는 8월부터 본격 진행될 ‘비전2020’을 밝혔다. 스님은 먼저 재정문제에 대해 발전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불교전문대학을 설립, 사

이버 대학 개설, 일산 대학병원 발전, 구성원 처우개선 등을 밝혔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동국대 발전을 위한 열망을 품었다. 25만 동문과 불교계,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결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정종 진제 스님의 축하메시지를 비롯해 해외 우수대학 총장들의 축하말 등이 이어졌다. 진제 스님은 “이번 이사장과 총장 스님은 모두 종단 종비생 출신으로 취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며 “‘일심동행’에 맞게 한마음으로 불교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동국대가 미래 100년을 발전하는 계획을 세워 추

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어느 누구보다 종단과 학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학교를 위해 종단의 역할을 찾아내고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며 종립학교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어느 때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종립학교 발전에는 많은 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끊임없는 불교계의 지원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발돋움을 이끌자”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축하화환을 대신해 받은 공양미를 증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도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인 외국어스피치 첫 대회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10월 14일 개최... 8월 3~14일 접수

지난해 학인 스님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불사연대회를 열어 큰 호평을 받았던 조계종이 교육 활성화와 불법홍포에 기여하고자 외국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회 조계종 학인 외국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한다.

외국어스피치 대회는 사찰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의 기본교육기관 재학 학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9월 15일 오전 10시 예선전이 열리며 개인·단체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은 5분 이내 설법을, 단체는 10분 이내의 토크·연극·상황극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제는 선(禪), 불교교리와 사상, 불교문화, 사찰의

생활 등이다.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PPT·관련사진·음악·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승가대학별로 학장스님의 추천을 받은 개인 2인, 단체 1팀에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중앙승가대는 총장, 동국대는 정각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8월3~14일이며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종교 갈등 해결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자승 스님, 10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예방서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종교편향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교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

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예방을 받고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종교간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

금지법, 증오범죄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인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9조 2항을 언급한 뒤, “공무원의 권한으로 종교적 편향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개인의 종교를 직책과 연관한 종교편향으로

인해 다툼도 많았다”며 “공무원은 종교를 떠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종교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돌아가야 한다.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믿음과 애정이 있다면 종교간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현불상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불상 단독
입점 상품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코끼리	(대)	51cm×21cm
		(중)	41cm×21cm
		(소)	35cm×21cm
	거북이	(중)	41cm×21cm
		(소)	35cm×21cm
향로	거북용두	(대)	28.5cm×34cm
		(중) ㉠	21.5cm×29cm
		(중) ㉡	18.5cm×23cm
		(소)	15.5cm×18cm
다기	다기	(대)	26cm×20cm
		(중) ㉠	22cm×14cm
		(중) ㉡	20cm×13cm
		(소)	17cm×12cm
향통	원형	(대)	15.5cm×7.5cm
		(소)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상 TEL 02)2004-8216